

GIST, 대한통증기전연구회 동계워크숍 개최

- '통증과학의 혁신' 주제로 최신 연구동향 및 새로운 통증 극복 방법 논의
- 정의헌 HYPE지각신경연구단장, "신경계 신호전달 이상에 따른 고통 해결 위해 뇌과학자, 뇌공학자, 임상의 등 전문가 협력 필요"



▲ GIST 다산빌딩에서 '2024 대한통증기전연구회 동계 워크숍'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(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순서대로 정의헌 HYPE지각신경연구단장, 김형일 GIST 교수, 안동국 대한통증기전연구회장, 배용철 경북치대 교수)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의생명공학과 주관으로 **1월 11일과 12일 이틀간 '대한통증기전연구회 동계 워크숍'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**

지난 2010년 창립한 대한통증기전연구회는 국내 통증분야 기초연구자들의 학술단체로, 국제학술대회인 'Asia Pain Symposium'을 2019년 국내에 유치한 바 있다.

이번 워크숍은 '**말초신경에서 뇌까지의 통증 경로 탐색**'을 주제로 대한통증기전연구회(회장 안동국/ 경북치대 교수), HYPE지각신경연구단(단장 정의헌/GIST 교수), 한국 뇌신경과학회 통증연구분과 공동 주최 및 GIST 의생명공학과 주관으로 열렸다.

이날 GIST 의생명공학과 김형일 교수와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배용철 교수의 특별 강연을 비롯해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발표 등 **통증과학의 혁신을 주제로 한 최신 연구동향, 새로운 통증 극복 방법 제시 등 유익한 학술교류의 장이 펼쳐졌다.**

'통증 기전'을 말초신경부터 중추신경, 뇌에 이르는 경로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선도적인 연구 방법이며, 특히 통증뿐 아니라 감각신경 이상을 포함한 신경 전달 경로의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HYPE지각신경연구단이 유일하다.

정의헌 GIST 의생명공학과장·HYPE지각신경연구단장은 “마약성 진통제가 유일한 치료법인 만성 통증과 현재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신경계 신호전달 이상에 따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**뇌과학자, 뇌공학자, 임상의, 의료기기 회사 등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**”며, “이번 워크숍은 통증 연구와 관련된 다양한 종사자들이 한데 모여 통증과학의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, **향후 공동 연구의 가능성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**”고 말했다.

‘HYPE지각신경연구단’은 **국가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11월 GIST에서 공식 개소했다**. 연구단의 이름 ‘HYPE’은 ‘과흥분성’ 신경계와 ‘과민감성’ 지각 현상을 열정적으로 연구하는 그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, 지각 시스템이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보를 과장되게 인식하는 현상, 예컨대 자폐 증상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.